

이제열 법사의 경전속의 수행법 <9>



아들 죽음으로 슬픔에 잠긴 여인

재산가와 결혼한 끼사코파미라는 여인이 아들 하나를 낳았는데, 아이가 걸음마를 시작할 무렵 병에 걸려 갑자기 죽고 말았습니다. 큰 슬픔과 충격에 휩싸인 그녀는 죽은 아들의 시신을 안고 이 사람 저 사람을 찾아다니며 살려 달라고 애원을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현명한 사람이 있어 어떻게든 저 여인을 도와야겠다고 마음 먹고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찾아가야 할 분은 부처님이요. 그 분은 당신의 이러한 고통을 해결할 약을 갖고 계십니다.” 이 말을 들은 고평미는 수도원에 계시는 부처님을 찾아가 시신을 앞에 내려놓고 통곡하면서 제 아들을 살릴 수 있는 약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되자 죽은 아들을 땅에 내려놓고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고평미는 죽은 자식을 숲속에 묻고 다시 부처님께 돌아가 사람이 죽지 않은 집은 없으며 중생은 누구나 다 죽음과 함께 이별의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그녀에게 이렇게 설법하셨습니다. “고파미 여인이여, 그대는 그대만이 아들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대가 깨달은 것처럼 모든 생명의 생은 반드시 죽음이 있고 그 죽음은 중생이 자기 욕망을 다 채우기도 전에 데려가 버리느니라.” 이에 그녀는 죽은 아들에 대한 애착이 떨어져나갔고 모든 존재는 무상한 것이며 무상한 것들 속에는 불멸하는 주체로서의 내가 없다는 사실을 완전히 깨달아 ‘수다원’이라는 수행경지를 성취하였습니다.



죽음과 이별의 고통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이치임을 깨달아

이 일이 있은 뒤 끼사코파미는 출가하여 비구니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밤이 되어 기를 램프를 밝히고 있었는데 램프불이 바람에 의해 팔력 이면서 꺼지는 듯 다시 살아나기를 되풀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일을 보면서 일체 중생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고 태어나면 다시 죽게 된다는 죽은 회의 이치를 알게 되었고, 마침내 최고의 수행경지인 아라한의 지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끼사코파미의 일은 아닐지라도 중생들의 삶은 매순간 수많은 압박의 연속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수행은 내적, 외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 몸과 마음의 현상을 바로 깨닫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유마선원장>

‘유마경’에서 생활禪의 뿌리 찾다

정운 스님 최근 발표 논문서 제시



재가선은 생활과 수행이 둘이 아니다. 인천공항공정찰대불자회의 법회 모습.

“좌(坐)”라고 하는 것은 한 순간에도 망념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며, ‘선(禪)’이라 함은 본래의 자성을 보는 것이다.”

하택신회(670-713) 선사는 <보리달마남종정사비론>에서 좌선을 이렇게 정의했다. 그러나 고정관념을 무너뜨린 이러한 좌선의 정의는 이미 <유마경> ‘제자품’에 나타난다. “사리불야, 앉아있는 것이 좌선이 아니다. 좌선이란 삼계에 몸과 뜻을 나타내지 않는 것이며, 멸진정에서 일어나지 않으면서도 온갖 위의를 드러내는 것이며, 부처님의 도법을 버리지 않고 범부의 일을 나타내는 것이며, 마음이 안에도 머물지 않고 밖에도 머물지 않는 것이다. ... 번뇌를 끊지 않고 열반에 드는 것이 좌선이니, 이렇게 좌선하는 사람은 부처님께서 인가하실 것이다.”

하택신회 선사는 유마 거사가 사리불에게 설하는 연좌(宴坐)를 들어 북종의 좌선방편을 비판하면서, 남종 돈교(頓教)의 사상적인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이다. 이는 “기왓장을 무조건 걷다 고 해서 거울이 될 수 없듯이 좌선만으로는 견성할 수 없다”는 “마진작경(磨鏡作鏡)”을 기원으로 깨친 마조도일(709-788) 선사의 일일선(日常禪)으로 발전되는 선구적인 사상이다.

이와 관련 정운 스님(중국대 박사과정수료)이 최근 <한국 불교학 결집대회 논집>에 발표한 ‘유마경의 수행체계 및 선사상 연구’는 <유마경>의 선사상을 생활선의 원류라는 측면에서 본격 조명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정운 스님은 논문에서 “반야사상과 돈오견성(頓悟見性) 및 좌선의 배경을 특징으로 하는 남종선의 근거는 이미 <유마경>에 등장한다”고 주장한다. “<유마경>의 유심정도, 번뇌 즉 보리, 막언선설(莫言言說, 말에 집착않음), 불이(不二)사상 등은 선종에서 적극 수용해 생활선으로 정착하게 된다. 즉 일상적인 행 하나하나가 바로 부처의 행이므로 행주좌와 어묵동



정운 스님.

행을 담고 있다. 이 무소구행은 <유마경> ‘불사 의품’의 ‘약구법자 어일제법 응무소구(若求法者於一切法應無所求)’ 사상에 영감을 받았으며 후대 마조도일 선사의 ‘부구법자 응무소구(夫求法者應無所求)’라는 사상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스님이 설명이다.

인도불교가 중국에 도래한 뒤, 선종의 수행차원에서 가장 큰 변모를 이룬 것은 수행방법으로 좌선만을 고집하지 않고 스님들만의 독자적인 수행이 아닌 재가불교화 되었다는 점이다. 정운 스님은 선종에서는 <유마경> ‘보살품’의 ‘4위의가 도량이며 3업이 불사’라는 말을 적극 활용하여 좌선과 노동 등 일상생활모두를 불사로 보는 점에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다고 말한다. 인간의 일상 행위가 법계가 되어 3업(身口意)의 행위가 전부 부처의 행이라는 것이다. 이는 후대에 마조 선사의 ‘평상심이 도’라는 생활종교로 발전되었다. ‘평상심이란 어떠한 것인가. 조작이 없고 시비가 없

실의 구체적인 일상 속에서 선수행이 가능하다는 선종의 근거를 밝히고 있다. “공은 마음(真心)이 도량이니 거짓이 없는 깨달이며, 행을 닦아가는 것(修行)이 도량이니 능히 일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며, 깊은 마음(深心)이 도량이니 공덕을 증진하기 때문이며, 보리심(菩提心)이 도량이니 그릇됨이 없기 때문이다.” “보살이 만일 모든 바라밀로써 중생을 교화하면, 온갖 행위 즉 일거수 일투족이 모두 도량으로부터 와서 불법에 머무는 것이다.”(유마경)

‘도량’이라는 말을 승소(384-413) 스님은 ‘한가롭고 편안하게 수도하는 장소’라고 주석, 자신이 머무는 장소라도 수행할 여건만 갖추면 깨달음의 장소가 된다고 하였다.

생사 즉 열반, 번뇌 즉 보리를 말하는 <유마경>의 불이법문에서는 재가와 출가라는 이원적 대립개념을 넘어, 재가자라도 깨달고자 하는 보리심을 발하면 그것이 곧 진정한 출가요 수행자이다. “만일 아늑다라삼막삼보리심을 내게 되면 그것이 곧 출가하는 것이며 그것이 구족계를 받는 것이다.”(유마경 ‘제자품’) 이처럼 <유마경>은 일체개공이라는 주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현실에서 묘유(妙有)를 적극 전개하는 보살행의 입장을 강조하며, 재가인이 출가사문 만큼 청정수행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유심정도·번뇌 즉 보리·불이 사상 재가-출가 대립개념 초월 “보리심 발하면 진정한 수행자”

적 전개방식이란 흐름에 세간-출세간, 진리-방편, 깨끗함-더러움, 색-공, 미혹-깨달음이 들어 아니며 ‘번뇌 즉 보리’라는 불이법문이 도출된다.

특히 보리달마520년 중국도래는 <능가경> 이상으로 <유마경>을 중시했는데, <이입사행론>은 <유마경>에 의한 반야의 논리가 배후에 담겨있다. 달마의 법문 중 무소구행(無所求行) 구하는 바 없는 행은 일체개공(一切皆空)의 진리를 깨달아 집착하는 마음을 초월하는 실천

으며 취사가 없고 단별, 상주가 없으며 범부라 할 것도 성인이라 할 것도 없느니라. 경에 이르되 ‘범부의 행도 아니요, 성인의 행도 아닌 이것이 보살의 행이니라.’ 다만 지금과 같이 행주좌와와 행편에 따라 움직이고 사물에 집하는 모든 것이 도인 것이다.”(경덕전등록)

이처럼 마조 선사는 <유마경> ‘문수사리품’에 근거를 들어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불성을 볼 것을 주장했다. <유마경> ‘보살품’에 ‘직심시도량(直心是道場)’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현

정운 스님은 “<유마경>은 반야사상을 생활의 실제적인 측면과 조화시키면서 어떻게 실천하느냐” 하는 문제를 밝히기 위해 재가선도인 유마 거사를 등장시켜 생활 속에 공의 실천을 드러냈다”고 설명한다. 정운 스님은 “자리이타의 증생구제에 있어 차안(此岸)을 버리고 피안(彼岸)에서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구제한다는 대비심을 강조한 것이 <유마경>이다”고 강조한다.

김재경 기자 jkjm@buddhapia.com



괴산 다보수련원에서 참선중인 외국인 유학생들.

우곡선원 외국인유학생 참선체험

우곡선원(선원장 정명화)은 5월 8-9일 외국인 유학생(대학, 대학원) 80명을 대상으로 참선체험 교육을 실시했다. 충북 괴산 다보수련원에서 열린 이번 참선체험 프로그램은 일본 중국 이태리 미국 영국 프랑스 등 20개국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한국의 불교문화와 정신을 깊이 체험케 한 수련회였다. 우곡선원 관계자는 “다국적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참선을 체험시킨 것은 우리의 선(禪) 문화를 세계 각국에 알리는 동시에 전통 불교문화를 통한 국위선양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우곡선원(www.zenkorea.org)은 5년전부터 선의 일상화, 대중화, 세계화라는 슬로건 아래 심성개발과 연구, 교육으로 시대를 선도할 인재를 양성하는데 노력해 왔다. (02)2055-3111

전북 불교연합회 4·8봉축행사에 대한 태고종 전북종도의 불참 성명서

삼보에 귀의하고 한국불교 태고종 전북 중무원에서는 부득이 금년 4·8봉축행사 동참을 유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전북 중무원은 그동안 매년 한결같이 4·8봉축행사에 종단을 가리지 않고 여법하게 동참하여 왔으나 태고종 단 산하 사찰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번 행사에 적극 동참(단체모금)을 못하게 되었음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1. 우리는 법인으로 인해 많은 불자님께서 누가 되었음을 깊이 참회하고 반성하며 종단간 분쟁을 자제하며 전북불교 총연회를 결성, 제반 불사에 힘을 모아 봉행해왔으며 전북불교의 단합된 여력을 내외에 과시하고 불우이웃 돕기 등 사회복지 증진에도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2. 그동안 종단간 상호 불협이 종단은 다를지언정 불교 일체주의로 화평한 분위기를 유지해왔는데 조계종단에서 40여년 전 불교 법안을 방불케 하는 법안을 일시키고 있습니다. 50여년동안 태고종의 사찰인 완주 봉서사와 진안 마이산 은수사를 강탈하려는 음모가 바로 그것입니다. 봉서사는 엄연히 태고종 승려 서호산스님께서 봉직하며 중창불사를 해 오늘의 봉서사가 있게 되었고 모든 토지와 건물이 태고종 봉서사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계종 총무원에서 김광복스님을 봉서사 주지로 임명하여 금산사 스님들이 봉서사에 드러내며 현재 소송의 와중에 있습니다.
3. 진안 마이산 은수사는 조계종 금당사 주지가 주지를 발령받아 은수사를 강점하려 하고 있습니다. 주지하시지는 바와 같이 은수사는 사설 사암으로 1985년경 잠시 조계종에 등록되었으나 조계종의 종지와 종풍이 맞지 않다가하여 탈종공고를 신문에 내고 탈종하여 바로 태고종에 전종한 사찰로 엄연한 태고종 소속 사암입니다. 그런데 전통사찰 등록원부에 소속 종단이 조계종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여(사무적외인 듯) 금당사 성호스님이 은수사를 정화하겠다며 자청(그러나 금산사 평상스님 천거를 받아 온 것은 아닌 줄 안다) 주지임명을 받아 사찰을 강제로 빼앗고자 하는 것입니다.

은수사는 사설사암을 입증하듯 은수사로 등기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등기부상 개인 명의의 토지와 건물이 있을 뿐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을 빼앗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수가 없는 일입니다. 전북의 태고종단 산하 220개 사암과 종도들은 이 사실을 알고 분개하며 이대로 가다가는 어느 사찰이 또 침해당할지 모르겠다는 우려와 불안감이 극도에 이르렀기에 자사의 권익보호와 원만한 신행활동을 하기 위해서도 이번과 같은 사찰강탈의 만행과 악순환을 단호히 대처하고 규탄하기로 했습니다. 불교연합회 행사로 봉행하는 4·8 및 도내 연합행사에 우리 태고종단에서는 절대 동참할 수 없으므로 이를 유보하기로 하였습니다.

2004. 5. 11.

한국불교태고종 전북교구 중무원장 유향산 및 종도일동

“우리도 부처님같이”

연등축제

불기 2548 부처님 오신날 Buddha's Birthday

5월 23일 일요일 오후 3시 대구 두류야구장

● 문화공연 한마당
오후 3시~6시, 두류야구장
(영산대제, 장엄등 경연대회, 사물놀이, 국악공연)

● 법요식
오후 6시~7시, 두류야구장

● 제등행진
오후 7시~9시
(두류야구장 → 성당시장 → 내당네거리 → 계대네거리 → 명덕네거리)

대구봉축위원회 T. 629-9783 F. 629-9600 www.부처님오신날.kr